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중국 인구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가치관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서청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24년 2월



# 중국 인구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서청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김주경

서청의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4년 2월

심사위원장 강영훈 

위 원 김형아 

위 원 김주경 



## <목차>

I. 서론 .....	7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제 2절 연구의 범위 .....	9
제 3절 연구의 방법 .....	9
제 4절 연구의 흐름도 .....	11
II. 이론적 배경 .....	12
제 1절 출산율의 개념 및 저출산의 개념 .....	12
1. 출산율의 개념 .....	12
2. 저출산 개념 및 특성 .....	12
제 2절 중국의 출산 현황 .....	14
1. 중국의 출산현황 .....	14
2. 중국 출산 수준의 지역적 차이 .....	15
3. 초혼 연령이 늦어진다 .....	16
4. 중국 출생 인구 성비 현황 .....	18
5. 중국 인구 고령화 현황 .....	19
6. 저출산 세계화 추세 .....	20
제 3절 가족계획 정책의 역사적 공헌 .....	21
1. 인구 증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	22
2. 평균수명 부단히 증가한다 . .....	23
3. 교육 수준이 현격히 향상되다 . .....	23
제 4절 중국 인구정책 및 출산 정책 .....	24
1. 중국 인구정책의 조정(2013년부터) .....	24
2. 중국의 출산 지원 정책 .....	26
제 5절 선행논문 검토 .....	30
1. 사회적 요인 .....	30

2. 경제적 요인 .....	32
3. 정책적 요인 .....	33
4. 가치관적 요인 .....	34
제 6절 저출산의 영향요인 .....	37
1. 사회적 요인 .....	37
2. 경제적 요인 .....	38
3. 정책적 요인 .....	40
4. 가치관적 요인 .....	40
Ⅲ. 연구설계 .....	41
제 1절 연구모형의 설계 .....	41
제 2절 연구에 가설의 설정 .....	42
제 3절 조사의 설계 및 표본특성 .....	43
1. 조사의 설계 .....	43
2. 표본의 특성 .....	45
Ⅳ. 실증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47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	47
1. 종합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7
2.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7
제 2절. 실증분석 결과 .....	50
제 3절. 가설의 검증 .....	53
Ⅴ. 논문의 결론 및 정책 제언 .....	54
제 1 절 논문의 요약 및 결론 .....	54
제 2절 정책 제언 .....	57
참고문헌 .....	60
부록 .....	63

## 그림 목차

<그림 1>연구의 흐름도 .....	11
<그림2-1> 순증인구수와 출생율 .....	14
<그림2-2> 중국 출생성비 .....	18
<그림2-3> 2018~2022년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중 .....	20
<그림2-4> 1950-2019 나라별 합계출산율 .....	21
<그림2-5> 중국 인구 자연증가율 .....	26
<그림3-1> 연구 모형 .....	42
<그림4-1>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 .....	54

## 표 목차

<표2-1> 성(省)별 출생률 .....	15
<표2-2> 년도별 혼인신고, 초혼 수치 .....	16
<표2-3> 2022년 지역별 혼인신고, 초혼 수치 .....	17
<표2-4> 1990-2020년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 .....	17
<표2-5> 중국 1949-2022년 인구 변화 상황 .....	22
<표2-6> 인구조사 연간 인구 10만명당 각종 교육수준 인원수 .....	24
<표2-7> 2013-2021년 5월 31일 인구정책 조정에 관한 정책 .....	24
<표2-8> 2022년 7월부터 중국의 출산 지원 정책 .....	29
<표2-9> 한국 선행연구 .....	35
<표2-10> 중국 선행연구 .....	36
<표3-1> 설문지 항목 구성 .....	44
<표3-2> 표본의 특성 .....	46
<표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7
<표4-2> '출산의지' 설문 결과 .....	48
<표4-3> '사회적 요인' 설문 결과 .....	48
<표4-4> '경제적 요인' 설문 결과 .....	49
<표4-5> '정책적 요인' 설문 결과 .....	50
<표4-6> '가치관적 요인' 설문 결과 .....	50
<표4-7> 실증분석 결과 .....	51
<표 4-8> 가설검증 결과 .....	53

## 국문초록

# 중국 인구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서칭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저출산 배경에서 젊은 사람들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와 실증연구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에서 국내 발간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중국 통계청 자료, 각종 회의에서 시행된 각종 출산 조치,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일련의 이론적 연구를 정리하였다.

둘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설립하고 연구목적

탐색하기 위한 논문의 가설을 세웠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의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324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접수하였으며, 연구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 도구로 spss2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탐색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출산 의지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요인별로 수행하였다.

2).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계하고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의지와 각 요인이 사이에 조절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3). 본 독립변수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과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 I. 서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79년부터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주요 출산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 정부는 '한 자녀' 확보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산 정책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이미 30여 년 동안 집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인구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8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 나라의 인구 세대교체, 즉 인구총량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일반적으로 2.1로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 국가통계청이 2021년 5월 11일 발표한 제7차 전국 상주인구조사에 주요 지역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준인 1.3을 기록하였다. 국제학계에서 정의하는 저출산 기준에 빠지기도 하였다. 동시에 6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0~14세 아동 수를 넘어섰고, 모든 노동력 중 노동연령 비율과 인구 규모가 전년보다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조사 데이터는 중의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 인구는 중대한 전환점을 겪고 있다. 현재 출산 현황, 국민의 출산 의향, 정부 부처의 정책적 조치, 저출산의 원인 등을 볼 때 매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 변화 과정은 다르며 선진국이 출산율을 후기 단계로 전환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리는 반면 중국의 출산율 변화에는 반세기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가지 출산율 변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유럽 선진국의 변화는 주로 사망률 감소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의 변화는 출산율 수준에서 시작되며 인구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기반이 크기 때문에 각 성, 시의 인구 규모와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고 각 지역의 출산율 변화 패턴도 비교적 복잡하며 일부 성, 시는 선진국의 출산율 변화 모델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변화 모델도 포함한다. 따라

서 출산을 변화의 과정과 완료 시점에 차이가 있다. 출산을 감소 과정은 돌이킬 수 없으며 이는 객관적 필연성과 주관적 능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중국 노인의 성장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인구 보너스 (人口红利)란 총인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급속한 저출산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인구의 주요 갈등은 더 과속 증가가 아니라 인구 보너스 소멸, 초저출산 압박,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중국 정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한해 출생 아이 수는 1960년대 2,600만 명에서 2021년에는 1,062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 2021년보다 85만 명을 감소하였다.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에서 0~14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33.6%였으나 2021년에는 18.70%(중국 제 7차 상주인구조사,20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인 27%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20~24세 젊은 층 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심각해진다. 중국노령화보고(2023)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노인의 중국 노인 인구 비율은 14.8%에서 25.6%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 노인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중국은 2000년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1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심층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 2032년쯤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 제 7차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 3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동력 위기, 1인 가구 위기, 노인 지원 위기 등이 증가하면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202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노령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도 늦어지면서 연금 지출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연금의 수익률도 악화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노동 불균형이 심화돼 노동력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고학력 인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뿐 아니라 경제문제다.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경제, 사회, 여성, 정책, 예산 보장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이 절실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출산 촉진 정책과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 제 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 범위는 중국 저출산 현상에서 젊은 층 들의 저출산에 관한 인식과 출산의사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내용분석, 설문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원인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의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출산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두 나라인 한국과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가의 사회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 관계가 밀접하여 두 나라는 사회 문화적 유사성도 많다. 중국은 2022년에 연간 출생 인구 956만 명이며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중국국가통계국),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2년 이후 61년 만이다. 이런 심각한 현상에서 중국 젊은 층 들의 출산의사를 어떤지,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하고 한국의 출산 현황과 정책을 분석 비교하여 효과적인 중국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 3절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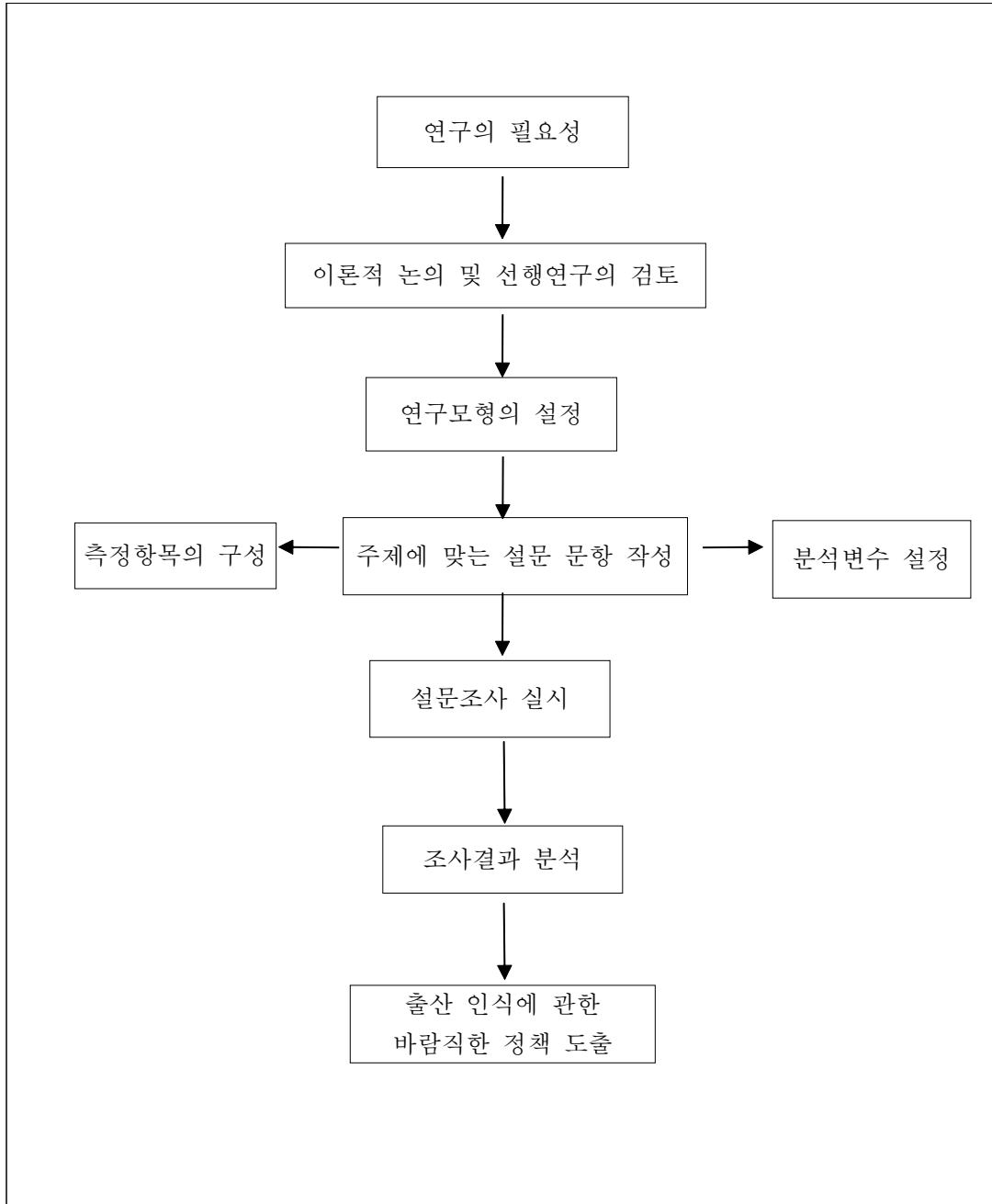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 1장 서론에 먼저 저출산의 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도출하여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도 제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진행방향 도출을 위해 관련서적 검색해서 연구의 흐름도를 설정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에 대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저출산 개념 및 출산율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출산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도표 형식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 준다. 제 3장 분석틀에서는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고 연구를 통해 실시된 분석 방법과 항목, 기준에 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정리된 이론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현황을 알아보고,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방법인 설문지의 세부 항목도 도출을 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종속변수인 출산의지 사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검증하였다.

제 4장 분석 결과에서는 중국 젊은 층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원인요소, 정부 정책의 성과 등 다양한 변수들 나누어 저출산 요인과 관련된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적당한 방법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중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 4 절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연구의 흐름도



## II. 이론적 배경

### 제 1절 출산율의 개념 및 저출산의 개념

#### 1. 출산율의 개념

출산율의 측정 지표는 인구 수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출산율 측정 지표는 합계 출산율(TFR)이다. 이 지표는 한 여성이 평생 그 해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에 따라 출산할 경우 그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낸다. 주어진 연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5~49세 사이의 연령별 또는 5세 연령대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하여 여성당 자녀 수로 표현한다. 합계출산율의 주요 장점은 시기적절성에 있다. 국가통계기관이 특정 연도의 출생자 수를 발표하면 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UNFPA, 2018).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줄여서 '자연 인구증가율'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평균 총인구에 대한 일정 기간(보통 1년 기준) 인구 자연증가수(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것)의 비율은 천분율로 표시된다. 자연 인구증가율은 인구의 자연증가 추세와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연 인구 증가율 수준은 인구 출생률과 인구 사망률 사이의 변동에 따라 다르다. 인구 출생률과 인구 사망률이 모두 높으면 인구 자연 증가율이 낮고, 인구 출생률이 높으면 인구 자연 증가율이 높으며, 인구 출생률이 낮고 인구 사망률도 낮으면 인구 자연 증가율이 낮다(何盛明, 1990).

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임 여성의 나이를 합산하여 계산되었다. 흔히 합계출산율 수준이 2.1명이면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라고 하고 이런 수준이 한 기간 유지되면정지인구(stationarypopulation)에 이르러 인구의 증가하거나 감소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방영이, 2021).

#### 2. 저출산 개념 및 특성

대체수준 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은 현 세대의 부부가 그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녀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유아 사

망률이 적은 선진국의 경우 대체수준 출산율은 2.1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유아 사망률이 큰 나라일수록 대체수준 출산율이 높고, 유아 사망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대체수준 출산율이 2.0에 근접한다. 유아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의 그것이 2.1이라면 유아 사망률이 높은 특정 개발도상국은 2.5보다 높을 수 있다(Craig J, 1994).

저출산 사회는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구 대체수준 출산율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 (15~49세) 한 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윤은숙, 2011).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인구교체 수준보다 낮으면 저출산 사회라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의 인구 교체 수준은 2.1로 향후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지적한 유럽 경제 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출산율은 출생, 사망, 인구 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인구 변화의 요소로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계획할 수 있다. 출생 규모는 출산 연령의 인구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생률의 감소는 출생 수의 감소를 의미하고 반대로 출생률의 증가는 출생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남시하, 2011).

출생시에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율을 출생성비라고 한다. 보통 여자의 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남자의 수로 표시한다. 또 출생성비는 부모의 연령, 계절, 지역, 직업, 인종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동을 나타낸다(간호학대사전, 1996). 그 수치는 여아 100명에 해당하는 남아의 수로 표현된다. 세계 각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오랫동안 출생 성비는 기본적으로 105 정도의 작은 범위에서 변동성을 유지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상 변동 범위는 103~107(즉  $105 \pm 2$ )이다(庄国波, 2017).

여아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와 남자 청소년의 사망률이 또래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결혼 연령대의 인구 성별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출생 성비가 계속 107을 넘으면 비정상적인 사회인구 현상으로 인위적인 태아 성을 선택한 결과이다(杨菊华 외, 2009).

## 제 2절 중국의 출산 현황

### 1. 중국의 출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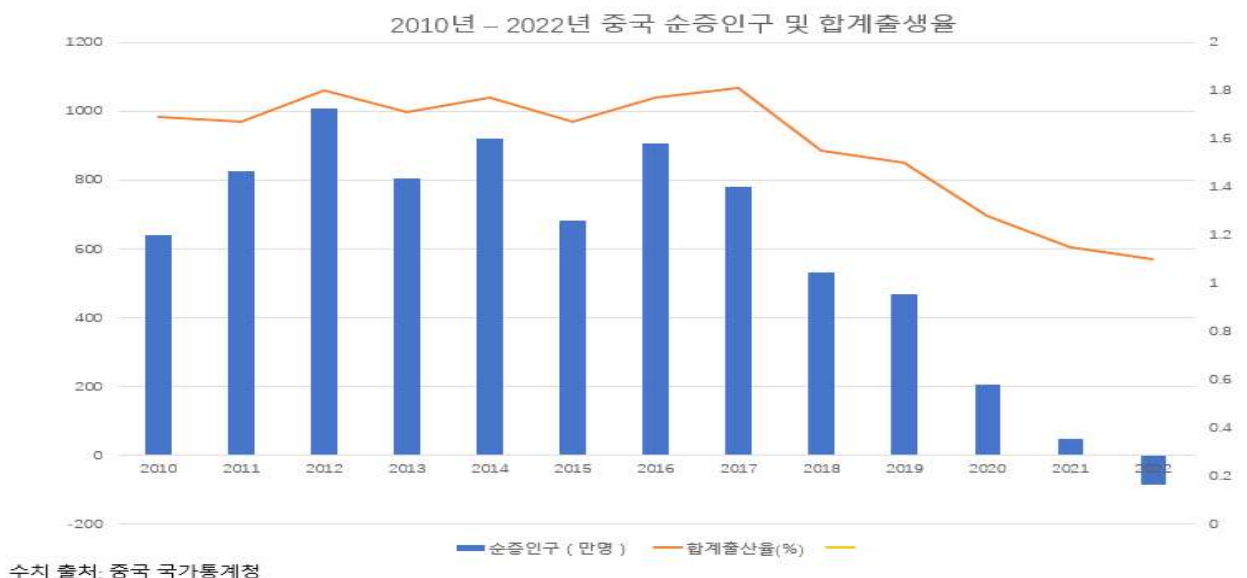
2023년 1월 1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2022년 국민경제 운영 브리핑에서 강의 국가통계국장은 2022년 말 전국 인구가 14만1175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85만 명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 중 연간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출생률은 6.77%, 사망자는 1041만 명, 사망률은 7.37%, 자연 인구 증가율은 -0.60%입니다.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2년 이후 61년 만이다. 우선 중국의 저출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년 출생 아이 수와 총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그림2-1>는 중국 2000년에서 2022년의 순증인구수와 출생율 대비 그래프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과 출생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아이' 정책으로 2016년에 인구가 소폭 증가하다가 6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순증 인구는 530만 명, 2019년 순증 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467만 명, 2020년 순증 인구는 204만 명, 2021년 순증 인구는 48만 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순증 인구는 총 719만 명으로 2017년(779만 명) 한 해 순증량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인구가 85만 명을 감소하였다. 출생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2-1> 순증인구수와 출생율





## 2. 중국 출산 수준의 지역적 차이

중국은 지역이 넓고, 지역 간의 차이가 뚜렷한데, 이것은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국정이다. 구체적인 가족계획, 경제발전수준, 문화풍속, 출산개념으로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거대한 인구규모와 뛰어난 출산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구수축이 뚜렷하고 출산잠재력이 부족하다. <표2-1>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중부 및 동부 지역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동부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은 칭하이(青海)·신장(新疆)이 가장 높았고 베이징·톈진(天津)·상하이(上海)는 계속 부진했으며 동북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구 출산율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율도 낮아진다. 둘째, 가족계획제도가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되는 지역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신장(新疆), 닝샤(宁夏) 등 민족지역은 가족계획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항상 높은 편이다(梁嘉宁, 2023).

<표2-1>성(省)별 출생률(%)

성	2000-2010 평균 출산율 (%)	2011-2021 평균 출산율 (%)	성	2000-2010 평균 출산율 (%)	2011-2021 평균 출산율 (%)
칭하이(青海)	15.36	15.38	허난(河南)	12.02	12.04
신장(新疆)	15.05	15.01	산시(山西)	11.12	11.14
하이난(海南)	14.58	14.57	저장(浙江)	10.43	10.43
구이저우(贵州)	14.54	14.57	산시(陕西)	10.33	10.37
닝샤(宁夏)	14.47	14.48	충칭(重庆)	10.29	10.35
윈난(云南)	14.09	14.14	후베이(湖北)	10.16	10.15
광시(广西)	13.98	13.97	쓰촨(四川)	10.09	10.15
장시(江西)	13.75	13.75	내몽골(内蒙古)	9.41	9.41
안후이(安徽)	12.57	12.56	장쑤(江苏)	9.35	9.33
티베트(西藏)	12.50	11.22	베이징(北京)	7.69	7.70
간쑤(甘肃)	12.44	12.46	톈진(天津)	7.60	7.57
푸젠(福建)	12.44	12.49	상하이(上海)	7.32	7.33
후난(湖南)	12.40	12.37	헤이룽장(黑龙江)	7.19	7.18
산둥(山东)	12.39	12.43	길림(吉林)	6.99	6.94
허베이(河北)	12.27	12.22	랴오닝(辽宁)	6.74	6.75
광둥(广东)	12.15	12.20	전국(全国)	12.50	11.84

자료출처: 각 성 통계 연감

### 3. 초혼 연령이 늦어진다

혼인신고 자료에는 초혼자 수와 재혼자 수가 포함되며, 재혼자 수보다 재혼자 수가 출생인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보 2023'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초혼자는 1051만7600명으로 2021년 대비 106만400명이 감소하였고, 2021년 대비 9.16%를 하락하였다. 초혼자가 1100만 명을 밑돈 것은 수 년 만에 처음이다. 예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초혼자 수는 2385만96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는 9년 동안 중국 초혼자 수가 55.9%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표2-2> 년도별 혼인신고, 초혼 수치

년도	혼인신고 (만쌍)	초혼 (만명)	년도	혼인신고 (만쌍)	초혼 (만명)
1985	831.30	160763	2012	1323.59	2361.17
1990	951.10	1819.13	2013	134693	2385.96
1995	934.10	1776.07	2014	1306.74	2286.81
2000	848.50	1581.39	2015	1224.71	2108.97
2005	823.10	1483.00	2016	1142.82	1913.26
2006	945.00	170560	2017	1063.10	1746.33
2007	991.40	1779.70	2018	1013.94	1598.67
2008	1098.30	1972.50	2019	927.33	1398.71
2009	1212.40	2168.80	2020	814.33	122860
2010	1241.00	2200.90	2021	76430	1157.80
2011	1302.36	2309.88	2022	683.50	1051.76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중국 통계 연감2023>

전체적으로 볼 때 2022년 중국 초혼자 수는 1051만 명을 밑돌았고, 결혼 적령기 감소, 초혼 연령 지연, 결혼 관념 변화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이후 역대 결혼 인구 연령 구조를 보면, 중국 결혼 연령 특히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졌다. '중국 인구센조사 연감-2020'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67세로 2010년 평균 초혼 연령(24.89세)보다 3.78세 높아졌다.

'중국통계연감 2023'의 데이터에 의하면 광둥성(广东)의 초혼자가 96만 88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남(河南)은 76만4900명으로 2위, 강소(江苏)·사천(四川)·산둥(山东)은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표2-3> 2022년 지역별 혼인신고, 초혼 수치

지역	혼인신고 (만쌍)	초혼 (만명)	지역	혼인신고 (만쌍)	초혼 (만명)
베이징 北京	9.13	11.81	후베이 湖北	28.43	45.38
톈진 天津	6.89	8.21	후난 湖南	28.44	46.49
허베이 河北	30.21	43.35	광둥 广东	57.31	96.88
산시 山西	18.19	30.22	광시 广西	24.87	42.45
내몽골 内蒙古	11.46	15.58	하이난 海南	5.14	8.54
랴오닝 辽宁	19.09	30.42	충칭 重庆	17.40	23.64
길림 吉林	11.40	14.33	쓰촨 四川	46.39	67.31
헤이룽장 黑龙江	15.05	17.93	구이저우 贵州省	29.38	45.53
상하이 上海	7.20	10.04	윈난 云南	27.38	41.96
장쑤 江苏	41.20	68.81	티베트 西藏	2.47	4.59
저장 浙江	30.43	49.29	산시 陕西	20.04	30.51
안후이 安徽	33.89	50.93	간쑤 甘肃	13.42	22.47
푸젠 福建	16.62	25.64	칭하이 青海	3.37	5.42
장시 江西	21.04	33.43	닝샤 宁夏	4.16	6.52
산둥 山东	42.06	61.21	신장 新疆	12.53	16.38
허난 河南	48.90	76.49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중국 통계 연감2023>

‘제7차 중국 인구조사’에 데이터를 따르면 1990년 중국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3.59세이고 여성은 22.15세이었다. 2000년에 남자 평균 초혼 연령은 25.11세이고 여자 23.28세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38세이고 여성은 27.95세로 증가하였다고 알 수 있다.

<표2-4> 1990-2020년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세)

년도	남녀평균	남성	여성	년도	남녀평균	남성	여성
1990	22.87	23.59	22.15	2006	24.67	25.65	23.68
1991	22.98	23.71	22.27	2007	24.67	25.64	23.67
1992	23.22	23.94	22.51	2008	24.77	25.7	23.82
1993	23.42	24.14	22.71	2009	24.89	25.79	23.97
1994	23.62	24.34	22.9	2010	24.89	25.75	24
1995	23.9	24.61	23.19	2011	25.09	25.93	24.24
1996	24.15	24.88	23.42	2012	25.34	26.14	24.52
1997	24.36	25.13	23.59	2013	25.72	26.52	2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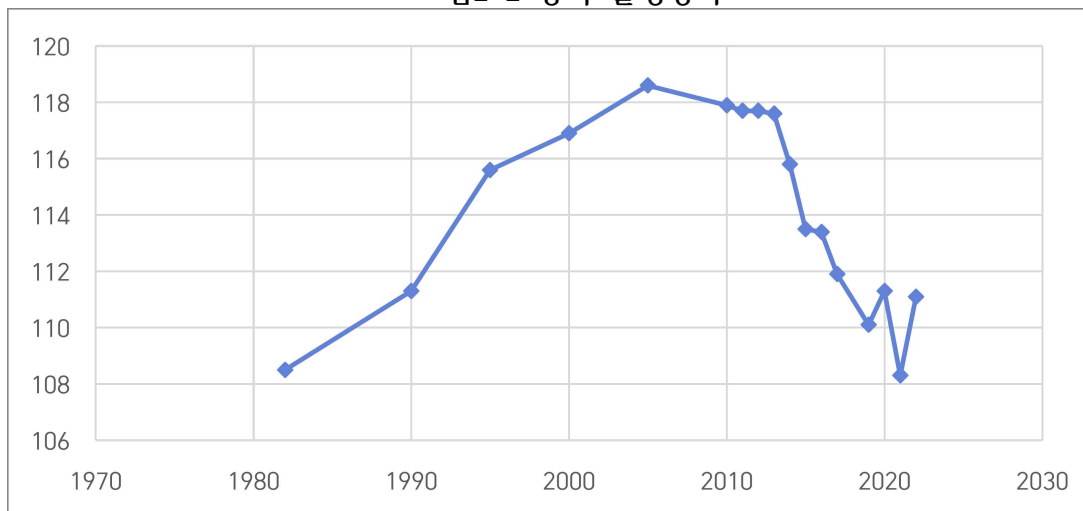
1998	24.53	25.34	23.71	2014	26.06	26.86	25.25
1999	24.39	25.26	23.52	2015	26.43	27.21	25.63
2000	24.21	25.11	23.28	2016	26.71	27.5	25.91
2001	24.24	25.18	23.29	2017	27	27.8	26.19
2002	24.27	25.23	23.29	2018	27.3	28.12	26.5
2003	24.43	25.4	23.44	2019	27.68	28.48	26.88
2004	24.47	25.44	23.48	2020	28.67	29.38	27.95
2005	24.52	25.48	23.52				

출처: 중국 인구조사 연감2020

#### 4. 중국 출생 인구 성비 현황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출생 인구의 성비는 정상치를 벗어나 계속 증가하였다(侯佳伟 외, 2018). 2004년에 121.2로 제일 높은 지위에 도달하였다. 2008년부터 추세가 하락했지만 2017년 111.9로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102-107의 정상치보다 높다. 2021년 108.3으로 떨어졌지만 2022년 111.1로 반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결혼 시기에 접어든 남성 인구가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과잉'될 것이고 사회생활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인구가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여성 인구를 크게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 22-34세 결혼 적령기 남성 인구가 같은 연령대의 여성 인구보다 2600여만 명 늘어날 것이고 출생 성비가 지금부터라도 정상치 범위로 회복된다고 하면 결혼 적령기 남성 인구 과잉 2030년 이후에도 계속될 듯이 라고 할 수 있다(梁建章 외, 2012).

<그림2-2>중국 출생성비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 5. 중국 인구 고령화 현황

인구 고령화는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의 인구 연령 구조가 노년 상태를 나타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노인 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채주, 2013)

노인 인구는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나타낸다. 60세 기준은 1982년 비엔나 세계 노령화 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65세 기준은 1956년 유엔(UN) 인구부와 1975년 미국 인구자문위원회가 채택하였다. 노인층에 대응되는 것은 소년층이다. 보통 만 15세 미만의 인구를 소년 층으로 분류한다. 적령 노동력 인구는, 전체 인구수에서 소년과 노인 인구를 뺀 것이고 즉 15~59세 연령대 인구이다(庄国波,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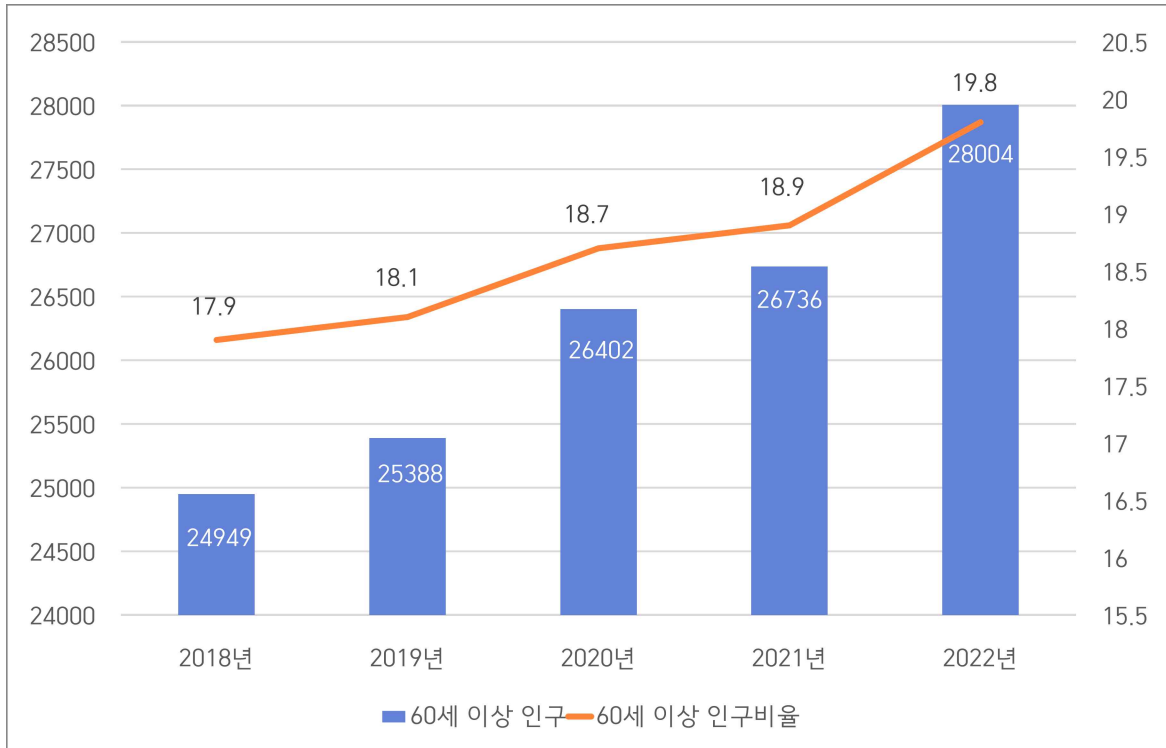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한 국가나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거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달할 때 이 국가나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력 공급 부족이다(庄国波, 2017).

중국 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7,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6%를 차지하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1,900만 명으로 8.87%를 차지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5차 인구조사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6차 인구조사 결과 고령화 심화하였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8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였다. 중국에 노령인구 총량은 세계 제1위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령인구가 1억 명을 넘는 나라이다(庄国波, 2017).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0세 이상 인구의 총수는 24949에서 2800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도 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2019년 2018년 대비 증가폭은 0.2%이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6% 및 0.2%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이 비율은 1.1% 증가하여 이 기간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및 사회 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사회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2-3>2018~2022년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단위(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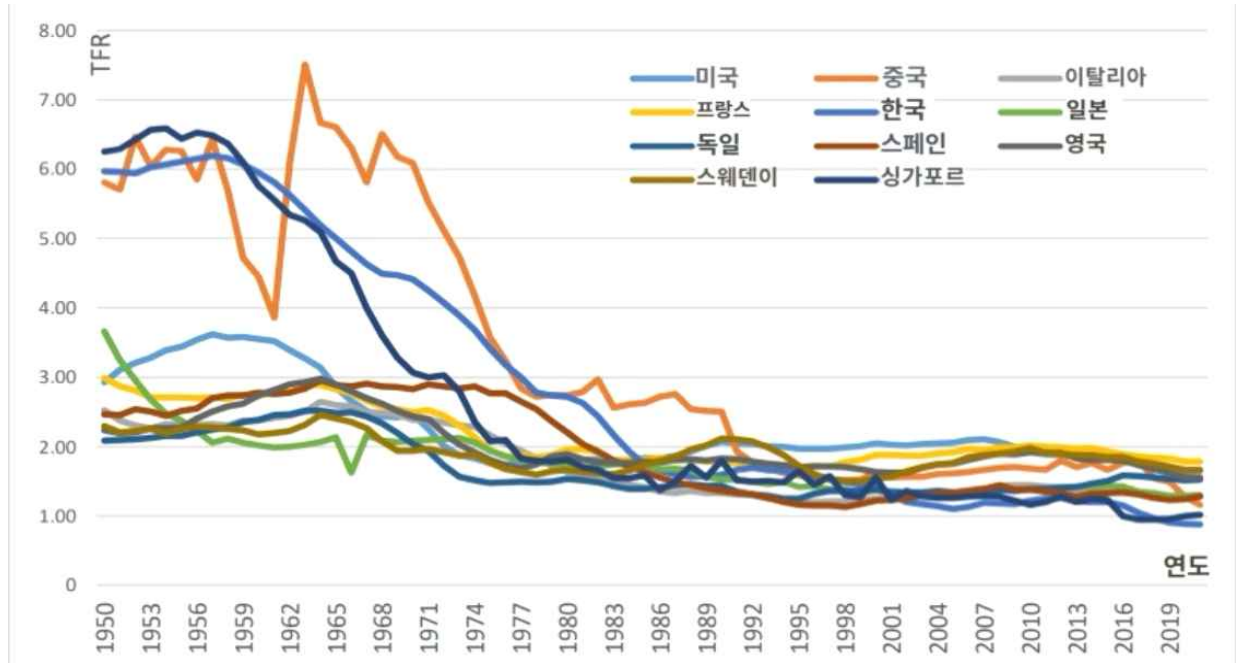
## 6. 저출산 세계화 추세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의 인구 태세는 전례 없는 격변을 일으켰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인구 증가 속도도 점차 느려지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부터, 인구 교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여, 구미 국가의 인구 발전 태세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지난 몇 년간 모두 1.3을 밑돌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인구 전망 2022' (2022 UN Population Prospects) 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전 세계 인구 증가율도 1950년대 이후 최저점에 도달했다. 2020년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은 이미 1%를 밑돌았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산율 2.1을 중요한 분수령, 즉 출산 세대 교체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림 3.3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를 보일 수 있다. 각국의 출산 수준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출산 수준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2-4> 1950-2019 나라별 합계출산율



출처: 세계은행 국가별 출산율 데이터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저출산 추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화의 추진 하에, 출산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의 전환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출산전환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출산 전환은 가족 계획 정책과 경제 발전의 이중 작용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출산 전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서방의 기존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독특한 현실 정경과 문화적 배경을 결합해야 한다(梁嘉宁, 2023).

중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낮은 인구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계획 정책의 성공적 시행이 관건이었다.

### 제 3절 가족계획 정책의 역사적 공헌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오랜 시간을 거쳤다. 본 문에서 주로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 이후에 시행된 ‘1자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출산 정책을 논의한다.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신중국 건국 이후 가장 높은 투자비용, 가장 많은 가족관련, 가장 긴 지속기간을 가진 공공정책이다. 십수억 인구인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면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된 엄격한 인구 출산 정책은 단일 기준과 단순화된 사고로 분석할 수 없으며 당시 환경에 있어 평가해야 하고 얻은 결과를 부정할 수 없으며 기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庄国波, 2017).

### 1. 인구 증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족 계획 정책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기여는 급속한 인구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인구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표2-5> 중국1949-2022年 인구 변화 상황

연도	총인구(만명)	출생률(%)	사망률(%)	자연 증가률(%)
1949	54167	36.00	20.00	16.00
1950	55196	37.00	18.00	19.00
1960	66207	20.86	25.43	-4.57
1970	82992	33.43	7.60	25.83
1980	99705	18.21	6.34	11.87
1990	114333	21.06	6.67	14.39
2000	126743	14.03	6.45	7.58
2010	134091	11.90	7.11	4.79
2011	134735	13.27	7.14	6.13
2012	135404	14.57	7.13	7.43
2013	136072	13.03	7.13	5.90
2014	136782	13.83	7.12	6.71
2015	137462	11.99	7.07	4.93
2016	138779	13.57	7.04	6.53
2017	139621.5	12.64	7.06	5.58
2018	140276	10.86	7.08	3.78
2019	140774.5	10.41	7.09	3.32
2020	141110	8.52	7.07	1.45



2021	141236	7.52	7.18	0.34
2022	141175	6.77	7.37	-0.60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중국 통계 연감.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평균 1372만 6200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05%에 달하였다. 그 중 1950년부터 195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과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314만 1100명과 2.22%이었고 1962년부터 1970년까지는 각각 1903만6700명과 2.60% 차지였다. 이것이 이른바 두 번의 베이비붐이었다.

1971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평균 1277만 4800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01%로 1971년 20년 전보다 현저히 낮았다.

## 2. 평균수명 부단히 증가한다 .

근대사회에서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35세 정도에 불과하고 1949년 이후,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였다. 1957년 일부 성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55.87세로 1949년 이 전에 비해 20세 이상 증가하였다. 1963년에는 인구조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데이터는 평균 기대수명이 61.22세이고 1975년 조사 결과는 평균 기대수명이 66.17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각각 67.77세, 68.55세, 71.41세 및 74.83세이다(庄国波, 2017). '2021년 중국 보건 및 건강 발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의 1인당 기대수명은 2020년 77.93세에서 2021년 78.2세로 증가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인간의 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袁永熙, 1991).

## 3. 교육 수준이 현격히 향상되다 .

가족계획은 인구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학령기 아동은 상대적 감소에서 절대적 감소로 떨어졌고 인구증가에 대한 9년 의무 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적령기 아동의 입학률을 높였다. 제3차, 제4차, 제5차 전국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982년 6-14세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수는 223,125,500명이었다. 1990년 17,658

만1100명, 2000년 1986,5700명, 2010년 13,105만7,900명이었다. 1982년에 비해 2010년에는 9,207만 7,600명이 감소하였다.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218360767명,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인구는 213005258명,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487163489명이고 초등학교 수준 인구 349658828명이다.

<표2-6>인구조사 연간 인구 10만명당 각종 교육수준 인원수 (만명)

연도	전문대학 이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964	416	1319	4680	28330
1982	615	6779	17892	35237
1990	1422	8039	23344	37057
2000	3611	11146	33961	35701
2010	8930	14032	38788	26779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중국 통계 연감

#### 제 4절 중국 인구정책 및 출산 정책

##### 1. 중국 인구정책의 조정(2013년부터)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은 각각 13.03%와 5.9%에서 8.52%와 1.45%로 소폭 변동하면서 점차 감소했습니다. '단독 2자녀'와 '전면 2자녀' 정책 이후 출산율·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陈对, 2021). 각 정책은 년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7>2013-2021년 5월 31일 인구정책 조정에 관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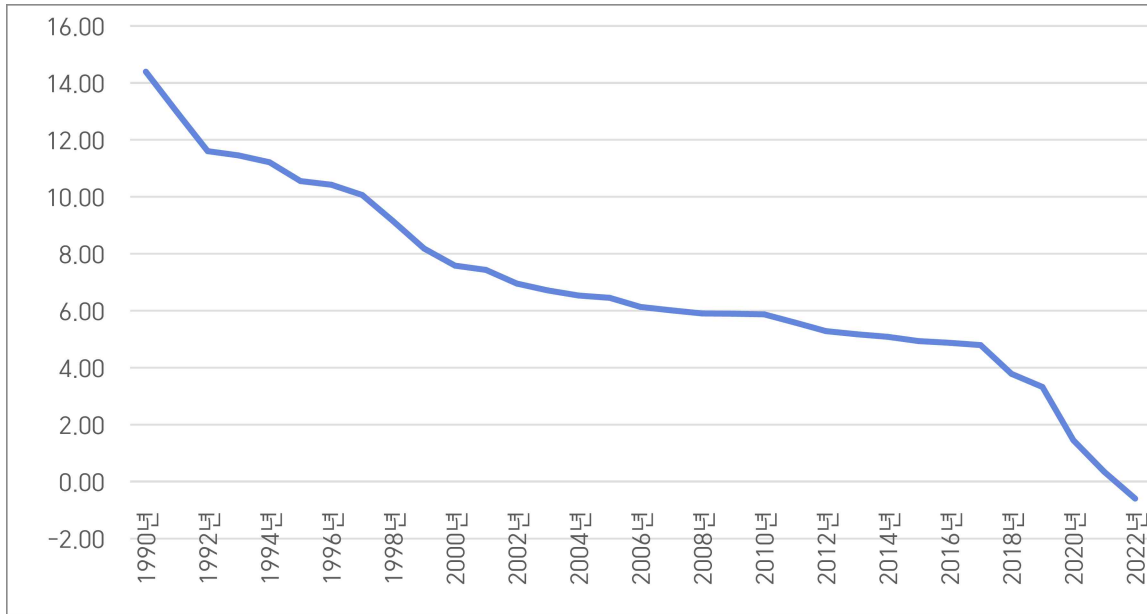
연도	부문/회의	문서	내용
2013년	십팔계삼중전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	단독 2자녀 정책은 부부 중 한쪽이 1자녀인 부부가 2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중공중앙위원회/국무원	<출산 정책의 조정 보완에 관한 의견>	단독 2자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2015년	십팔계오중전회		전면 2자녀 정책, 전면 실시 1부부 2자녀 출산 가능
2015년	중공중앙위원회/ 국무원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개혁 실시에 관한 가족 계획 서비스 관리 개선 결정>	2016년부터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정책 외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단속하고, 인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2016년	국무원	<국가 인구 발전 계획 (2016~2030년)>	향후 15년 동안 중국의 인구구조는 깊은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인구출산 수준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인구균형발전을 중대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2021년	중공중앙위원회/ 국무원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 출산정책 최적화 인구 장기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결정>	출산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여, 한 부부는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자료출처: 저자 정리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뚜렷한 변동을 겪었으며 <표 2-4>는 중국 인구 자연증가율 추세 그래프다. 인구정책 조정과 중국 인구 자연증가율을 결합하면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인구 증가율이 14.39%에서 10.55%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다시 조금 회복되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가족 계획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7.58%에서 4.79%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정부로 하여금 일련의 정책을 내놓아 출산을 자극하도록 하였으며 출산율 지속 하락으로 정부는 출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아야 했고, 2013년 '단독 2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았고,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4.79%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017~2021년 낮은 인구증가율 유지하면서 2021년은 0.34%로 나타났다. 2022년은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0.60% 달성하였다.

<그림2-5> 중국 인구 자연증가율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 2. 중국의 출산 지원 정책

2022년 7월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7개 부처는 '적극적 출산지원대책의 추가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적정 출산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총체적 요구 사항은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통합하고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및 기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개선 및 시행하며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결혼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출산 수준 실현을 촉진하고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 가. 출산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 1). 출산 전, 후 전(全) 과정 서비스를 개선한다.

출산 전에 혼인 전의 건강 관리, 임신 전의 건강 관리, 산전 검진 및 산전 진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요 질병에 대한 주임기, 출산 전과 출산 후 통합 관리 서비

스 및 다학제 진단 및 치료 협력을 촉진하고 신생아 유전 대사 질환, 청력 장애 및 선천성 심장병 검진 및 진단을 강화한다. 출산 후 층면에서 기층 의료 기관에서 아동 보건 클리닉(아동 보건실)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향진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에서 아동 보건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배치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건강 과학 대중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뉴미디어 및 기타 채널을 통해 과학적 육아 지식과 기술을 대중화한다. 공공 복지 자선 사회 조직과 같은 사회 세력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촌 및 저개발 지역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 2). 보편적 보육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킨다.

아이를 낳으면 누가 돌보나요? 영유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중하나이다. 이 문제는 특히 맞벌이를 하는 많은 가정,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하였다.

중앙 예산 내에서 투자 지원 및 지도를 통해 공공 보육 서비스 역량 구축 프로젝트 및 포괄적 보육 서비스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사회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 보육 기관의 요금 기준은 지방 정부가 제정하고 보편적 보육 기관의 요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사회 보육 서비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영유아 보육 시설과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 시설을 개선한다.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직원에게 복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가족 보육원에 대한 관리 조치의 공식화 및 도입을 가속화한다. 선행학습의 대중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 유치원이 2~3세 유아를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일반 대학 및 직업 대학이 보육 서비스 관련 전공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 법에 따라 보육 종사자에 대한 직업 자격 접근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건강관리 직업 기능 훈련 계획을 심층적으로 시행하고 보육 직원에 대한 기능 훈련을 강화한다.

## 나. 출산 친화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한다.

### 1). 유연한 작업 방식과 업무 환경의 실행을 장려한다.

고용주는 출산 상황 및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출퇴근, 재택근무 등의 업무 방식을 채택하여 자녀의 등하교, 아프거나 재택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육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고용주는 임신부 휴게실과 수유실을 설치하고 임신부 및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자병실 서비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고용주, 학교, 지역 사회 및 그룹 조직이 겨울 및 여름 방학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 2). 여성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개선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 특히 출산 및 재취업 여성 관련 직업 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고용 성차별 회담을 약정하고 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고용주가 법과 규정에 따라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임금 및 노동 강도 등에 대한 특별 노동 보호를 시행하도록 감독하고 촉구한다. 감독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사법 구제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여성의 평등 고용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공익 소송의 발전을 모색하고 여성의 노동 및 사회 보장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조합 노동 법률 감독을 강화하고 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촉진한다.

## 다. 출산 휴가와 처우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 1). 출산 휴가 제도를 최적화한다.

모든 지역은 직원의 출산권익 보호와 출산 직원의 건강권 보호라는 기능적 위치에서 시작하여 출산 보호 및 양육 과정을 구현하고 직원이 일과 가족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공정한 고용과 직업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출산 보험 등 관련 사회 보험 제도를 완비한다.

국가는 출산 보험에 대한 출산 수당 지급 정책을 통일, 표준화 및 제정하고 개선하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 의료비 및 출산 수당 처우에 대한 출산 보험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출산 보험 기금의 안전을 보장한다. 미취업 여성은 도시 및 농촌 거주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료(출산보험료 포함)를 납부하고 출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라. 주택·세수 등의 지원 조치를 강화한다.**

**1). 주택 보장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한다.**

보장성 임대 주택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민, 청년 및 기타 그룹의 주거 어려움 해결을 촉진한다. 적극적인 출산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장지원 대책을 더욱 개선하고, 각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조건에 부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세대선택에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고,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 및 임대규칙을 최적화하고, 가족 수와 구성을 대기자 순위 또는 종합 점수에 포함시키고, 조건에 부합하고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주택선정을 조직할 수 있다.

**2). 집세 우대 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주택정책은 다자녀가구에 치우쳐 있으며, 도시에는 자가주택이 없고 임대주택이 있는 다자녀가구는 실제 임대료 지출에 따라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주택적립금 대출한도를 적절하게 높이는 등 관련 지원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임대 주택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며 임대 구매 권리의 균등을 촉진한다.

이상 정책을 간략해서 정리하면 다음<표2-3>과 같다.

**<표2-8>2022년 7월부터 중국의 출산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정부 정책 발표 및 요구 사항	2022년 7월 국무원 승인을 받아 17개 부처가 '적극적 출산지원대책의 추가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한다.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 구축, 출산서비스 수준 향상, 유연한 취업 환경 조성, 주택·세수 등의 강화된 지원 조치한다.

출산 서비스 수준 향상	출산 전, 후 전(全) 과정 서비스 개선한다.
	주요 질병 주임기, 출산 전후 통합 관리, 신생아 유전 대사 질환 및 기타 검진 및 진단 강화한다.
	아동 보건 클리닉 표준화, 의사 배치 수준 향상, 건강 과학 대중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다.
보편적 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공공 보육 서비스 역량 구축, 포괄적 보육 서비스 특별 조치 시행한다.
	요금 기준 감독, 지역 사회 보육 서비스 확장, 영유아 보육 기본 서비스 개선한다.
출산 친화적인 취업 환경 조성	- 유연한 작업 방식과 업무 환경 장려한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설치, 겨울·여름 방학 돌봄 서비스 권장한다.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고용 성차별 회담 약정한다.
출산 휴가와 처우 보장 완비	출산 휴가 최적화 및 출산 보험 관련 사회 보험 제도 완비한다.
주택·세수 등의 지원 강화	보장성 임대 주택 개발 가속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보장 지원한다.
	주택 정책 집중적으로 다자녀가구에 치우친 우대 정책 실시한다.
	임대 주택 시장 발전 가속화, 임대 구매 권리 균등 촉진한다.

## 제 5절 선행논문 검토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중국보다 먼저 나타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현상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정다운, 2017). 이런 심각한 출산 문제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요인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 프랑스도 저출산 위기에 앞



장했다. 이영림(2021)은 그 연구에서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산업혁명을 주도한 유럽은 18세기 출산율 증가의 주력이 됐지만 20세기 들어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둔화된 지역이 됐다고 지적하였다. 현 단계에서 유럽은 사망률과 출산율이 모두 부진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거나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기는커녕 더욱 완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향방이 국가 정책으로 바뀔지, 유럽의 사례는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거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영림은 프랑스의 경험과 한국사회의 미래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경우 대량한 이민, 가정에 대한 관념이 변함, 그리고 제 2차 세계 전쟁 후에 세금 감소, 의학이 발달해서 피임방식도 발전하는 것들은 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알 수 있다.

정다운(2017)은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의 결혼관이 변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비용의 증가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남녀((20~44세)로 대상을 설문조사를 하니 자녀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와 자녀관이 변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성의 교육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도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었다. 이혼이 많을수록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파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출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증대함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니 양질의 보육인프라 부족하다는 것도 요인 중 하나이다.

전운영(2018)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연구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 즉 맞벌이 부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활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혼, 출산 및 육아는 여성의 고용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과 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관계는 고용환경, 노동시장 재진입 구조, 육아지원제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교육의 발달로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출산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 2). 경제적 요인

오민지(2020)은 경제적 요인도 인구학적 요인이자 국가의 저출산(또는 출산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한 국가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공통적인 원인을 논의한 연구들에 따르면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발전 정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선행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GNI, GDP, 평균 물가 상승률, 고용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예: 오창섭·최성혁, 2012; 조명덕, 2010)나 고도화된 경제성장 지표와 함께 높은 주택가격 등 거시경제적 요인이 국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였다.

전윤영(2018)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결혼비용 부담의 증가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결혼은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출산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은 출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 성인들은 결혼 후 가정을 다시 꾸리는 과정에서 제값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인구부양비에 있어서 유년부양비는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감소하였다.

양귀순(2014)는 출산율의 변화는 지속성이 강하고 사회심리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단기적인 정책 처방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교적 긴 시계(time horizon)를 염두에 두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만혼으로 인한 여성의 연령 증가는 임신가능성을 그만큼 더 낮아지게 하며, 자녀양육비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수를 적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극적으로 양육부담이 줄어들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王凱(2020)는 개인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은 주택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기본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출산율을 낮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택 상황 변수는 여성의 출산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현대 부모들은 자녀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

장 중요한 담보로 여기지 않으며, 특히 80대 여성의 경우 대부분 외동 자녀이며,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번째는 학군주택 구입 등 고가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당대의 소득이 높은 부모일 수 있으며,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 생활수준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의 질이 이전 삶의 질보다 낮거나 약간 낮지 않도록 여성은 출산하지 않거나 적게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李建伟(2014)는 세계 각국과 지역의 출산율 관점에서 볼 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보장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국 주민들의 출산율이 저출산으로 전환되고 1960년 이후 국가별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 및 지역의 출산율도 중저소득 국가보다 크게 낮다. 중국의 전통문화에는 다자녀다복(多子多福)의 개념이 있으나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교육 수준의 향상과 양육비용의 상승으로 다 자녀다복의 출산 관념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다년간의 가족계획 홍보 및 교육을 거쳐 만혼, 만육, 소생, 우생의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출산관념의 변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0년 각 지역의 출산율을 측정된 결과, 경제발전수준, 사회 보장 수준, 양육비용이 우리나라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발전수준, 사회보장수준, 양육 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중 사회 보장 정도가 각 지역의 도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3). 정책적 요인

방영이(2010)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국가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은 출산 정책이라는 점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출산율이 변화하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들은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북유럽국가, 불어권 국가 등). 반면, 저출산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가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어 초고령 사회에 근접하거나 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강하며, 가족사회는 분업의 가치관을 유지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직접적으로 출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산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자녀 서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등 출산 유도 기능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사회보험과 세제, 출산 패턴 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육 서비스와 출산 의료비의 부분적 면제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윤옥(2012)은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후 두 가지 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실질적인 출산의지는 24시간 연장보육시설 운영, 가족친화문화 확산, 가족친화적 사업인센티브 제공 등이었다. 양육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을 돕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출산 의지가 적은 정책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 우수지역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통한 출산율 제고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 4). 가치관적 요인

이정원(2009)은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으로, 국가 및 사회와 집안 등의 집단을 위한 의무 수행으로 출산하는 태도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이라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후속자녀 출산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또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강세창(2019)은 사회에 대한 가족과 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제는 부부 간의 성적 기회나 상호 성장의 기회로서 혼인의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혼인에 대한 가치관 역시 시대에 따라 공동체를 지향하던 집단주의 의식에서 각 개인의 자유와 독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의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미란, 2007, 재인용)고 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의 가치관 변화로 이어지고, 자녀의 가치관 변화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 중에 우선순위도 다르다고 한다. 탈 물질주의로 전환되어가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 중시되고 그러한 영향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고 한다.

王凱(2020)는 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현대 여성은 점차 전통적인 개념을 바꾸고 자신의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국 가정은 양보다 아이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교육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며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더 많은 사회적 행동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개념과 오래된 가족 개념에 대한 제약이 적다. 더 이상 가정에서 남편을 가르치는 주력군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 활동 및 참여와 같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9> 한국 선행연구

저자명	논문제목	구성변수
이영림(2021)	근대적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프랑스의 경험과 한국사회의 미래	이민, 출산 지원 정책, 세금, 피임방식 발전
박선권(2019)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양육 부담, 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산아 연령, 결혼 의지
정다운(2017)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 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지원정책, 고용률,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여성 결혼여부, 여성 경제활동, 여성 출산인식
방영이(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출산 정책 변화, 개인의 가치관, 정부 정책에 대해 인지도
고우림(2021)	출산력에 대한 융합적 탐구: 인구 밀도와 편중 분포를 중심으로	인구 밀도, 1인당 국내 총생산, 여성의 기대 수명시간, 1인당 개인 소득, 고용률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개인의 가치관, 출산장려정책, 가족 출산 지원
정성호(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보육 지원, 육아 휴직 정책, 노동시장, 사교육비
조다연 외(2016)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HRD 분야의 역할과 과제	출산 양육 지원, 보육 정책, 여성 경제 활동
송영신(2017)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아시아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경제안전제도, 노후소득보장, 노인권익보호법

<표2-10> 중국 선행연구

저자명	논문제목	구성변수
金益基(2017)	重思中国的人口新政策 :与日韩低生育率和人口老龄化比较 ( 중국의 새로운 인구 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와 비교하다 )	육아 지원 정책, 노인 부양 부담, 의료 충분 여부, 출산 정책
王广州(2021)	中国走出低生育率陷阱的难点与策略 ( 중국이 저출산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어려움과 방책 )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 개인의 가치관, 출산 정책
王凯(2020)	低生育率因素的实证分析—基于人口抽样调查统计 ( 저출산 요인의 실증분석-인구추출조사 통계에 기초로 )	개인 소득 수준, 개인 교육 수준, 보험 유무, 근무 분류
张敏(2017)	浅谈人口老龄化的现状与趋势 (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추이를 논하다 )	의료 보험, 개인 소득 수준, 노인 복지 정책, 노인의 심리 문제
吴媛媛(2021)	中国人口老龄化的区域经济增长效应研究 ( 중국 인구 고령화의 지역경제 성장효과에 관한 연구 )	인구 구성의 변화, 도시와 농촌 갈등, 경제 발전

## 제 6절 저출산의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출산의지에 대한 대표적인 영향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 1. 사회적 요인

#### 1). 여성 교육 수준 상승

고학력, 고자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더 많은 자주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여성의 출산 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과 대를 이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선호한다(王凱, 2022). 높은 교육 수준은 여성의 출산 의향을 낮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여성이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고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 2). 보육 시설, 양육 환경에 불안성

현재 정보 시대와 경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혼인 관념과 출산 관념도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문화, 사상 및 정보 전달 모델이 크게 변화했으며 편리한 전달 모델은 문화 확산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과 아이 생육 과정의 어려움에 묘사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증대함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니 양질의 보육인프라 부족하다는 것(정다운, 2017)도 요인 중 하나이다. 빈번한 학교 폭력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 3). 여성의 고용 상황 및 경제 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과 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과의 관계는 취업환경, 노동시장 재진입 구조, 양육지원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 발전에 따라 교육을 받아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의 성격이 좋을수록 여성의 출산은 줄어들 것이다(王凱, 2022). 더 나은 직장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필요한 양육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되면 출산 수가 감소하게 된다.

## 2. 경제적 요인

### 1). 주택 마련 비용 상승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과 달리 중국의 집값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교육비 과다, 출산관념 변화, 집값 급등 등 출산으로 이어진다. 비율 하락 요인 중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집값이 가정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집값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높은 집값이 집을 살 의사가 있는 가구의 소비를 밀어내어 출산을 억제하는 압출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효과, 즉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이 있는 가구의 부가 증가하여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헌에 따르면 높은 주택 가격은 거시적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든 미시적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든 국내 기존 연구에서든 일반적으로 압출 효과가 지배적이며 즉 주택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거주자의 출산율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율에 명백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张 芬 외, 2023).

### 2). 결혼비용 증가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특수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납징이다. 납징은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네이버 국어사전). 보통 여성에 대한 존중과 가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물의 출처는 주로 두 가족 간의 경제적 거래에서 비롯된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예물은 결혼 전의 중요한 연결 고리 중 하나이다. 어떤



곳에서는 예식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일정한 축의금을 요구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표시함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에서 고가의 예물이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여성의 체면이 좋으면 예물이 높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포함한 일부 젊은 여성들은 예물이 높으면 결혼 후 안정감이 높아지며, 서로 비교하면 고가의 예물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농촌 결혼 적성 남성의 경우 높은 선물 금액이 결혼의 '감내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 예물은 농촌 가정의 빈곤 및 빈곤 위험 증가, 농촌 여성의 결혼 권익 침해, 많은 농촌 남성의 결혼 어려움, 심지어 영구 결혼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焦敏, 2023).

### 3). 양육비용 증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인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린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어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감소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국 주민들의 출산 의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각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은 저소득 국가보다 훨씬 낮다(王英, 2021).

실제 출산수준과 의도된 출산수준의 차이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높은 양육비용과 현재의 역피라미드형 가족구조가 인구의 출산수준 증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수준 감소 요인 중 하나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이며, 현재 가정은 일반적으로 자손 자녀의 질과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녀비용 지출은 가계지출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상대적 하락을 초래한다(刘卓, 2019). '1자녀 정책' 가족 구조 모델의 부부는 2명은 노인 4명을 보살펴야 하고 자녀 3명 양육해야 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출산 의향이 높지만 실제 출산 행동은 감소한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기업은 평균 3.20만 위안의 출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여성 근로자가 같은 기업에 일하는 동안 두세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업은 각각 6.39만 위안, 9.59만 위안 출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출산 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출산휴가 연장 기간에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1~3자녀 출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출산휴가 연장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杨慧, 2022).

### 3. 정책적 요인

#### 1). 출산 지원 정책

중국 인구 출산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1자녀' 정책 기간에 강력한 출산 제약으로 인구 출산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엄격한 출산 정책은 한때 인구의 자율 출산 선택과 크게 괴리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출산 정책의 역할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0년 동안 '1자녀' 출산 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을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3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2). 출산 의료 보조금 제도

출산 의료비의 보조금 수준은 여성의 출산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출산 비용은 여성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지출은 엄청난 지출이 되었고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지출이다. 현재의 출산 의료 처우는 더 이상 출산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여성의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출산 비용의 사회화와는 여전히 큰 거리가 있다. 출산 보험 처우가 가족의 출산 비용을 줄이고 여성의 고용권과 출산권의 모순을 완화하며 남녀 모두의 출산 권익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 출산 장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季言玲, 2023).

### 4. 가치관적 요인

#### 1).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의 변화

최근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러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이삼식, 2006 재 인용). 결혼관이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은 개인의 필요나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선택의 기준은 전적으로 개인의 손익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인의 필요와 가치관이 구체화되면서 사랑이 전제가 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즐기려는 의지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방영이, 2010).

결혼과 가정의 관념이 바뀌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의 결혼 및 가족 개념은 서구 문화의 유입, 가족 경제 기능의 약화, 여성의 자아실현과 같은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 현재, 혼인 이외의 매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의 대체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성장한 '20대', '10대'는 혼육의 새로운 주체에 대해 개인주의와 자기발전의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혼인은 인생의 선택일 뿐 필수 선택이 아니다. 이런 변화들은 출산을 저하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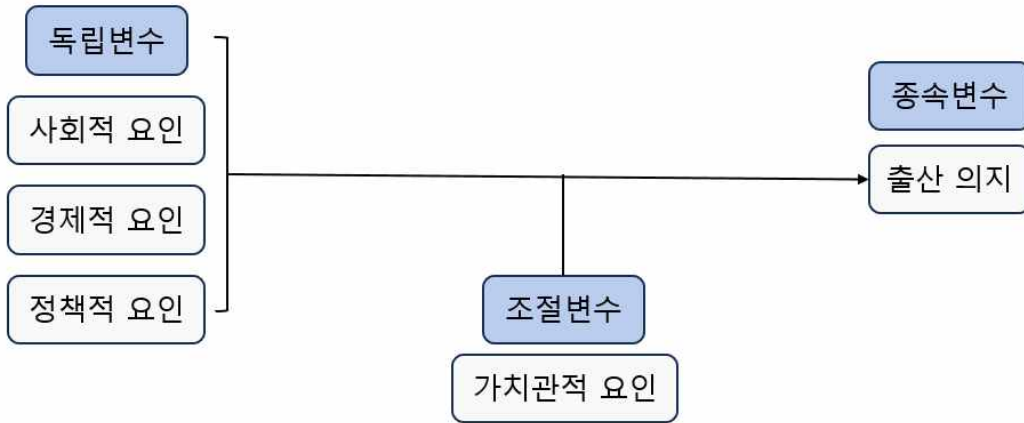
반면 예로부터 중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 남자 아이만이 가정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예로부터 농업 농업을 위주로 중국 고대 남자아이의 출생은 한 가정에 노동력이 하나 더 생긴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중국 어떤 지역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에 이것을 영광으로 여긴 경우 출산 의사 상승할 수 있으며 어떤 지역에 남자아이를 상호 하면 남자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경우 출산 의사 상승할 수도 있다.

### Ⅲ.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중국 고령화 시대에 출산의지에 각 요인이 어떤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적 요인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과 가치관적 요인, 출산의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각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개인의 '가치관적요인'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는 중국 젊은 사람들의 '출산의지'변수를 활용하였다. 이상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3-1>과 같다.

<그림 3-1>연구 모형



### 제 2절 연구에 가설의 설정

일반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출산의지에 대한 대표적인 영향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요인에 따른 출산의지에 영향여부를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사회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경제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정책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에서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가정의 관념이 바뀌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의 결혼 및 가족 개념은 서구 문화의 유입, 가족 경제 기능의 약화, 여성의 자아실현과 같은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 현재, 혼인 이외의 매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의 대체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성장한 '20대', '10대'는 결혼, 생육의 새로운 주체에 대해 개인주의와 자기발전의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혼인은 인생의 선택일 뿐 필수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관 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인과 출산

의지에 있어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4> 가치관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 가치관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 가치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제 3절 조사의 설계 및 표본특성

#### 1. 조사의 설계

본 연구의 가설검증과 실증분석을 위해 2023년 5월에 중국 젊은 층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총 352부 응답을 받았는데 30초 이하 응답자 제외하고 324부는 받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중국에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을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각 요인 조사의 항목은 리커트 5등간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통계변수 부문은 중국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상태, 갖진 아이수, 원하는 아이수, 외동 여부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정상적으로 남녀로 구분되며 나이는 구체화되어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으로 구분된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나눈다.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으로 나누고 기혼이나 이혼하는 경우 갖진 아이수와 원하는 아이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직업별로 무직, 자영업, 생산/기능직, 사무직, 전문직, 학생, 주부,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에 응답자가 외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로 각 상황에 출산의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분이다. 셋 번째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유치원 학대, 여성의 취업 불이익 여부, 납채<sup>1)</sup>(納采) 예물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

1) 납채 (納采)

(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儀禮)《지금은 '납폐(納幣)'의 뜻으로 통용됨》.

려하는 정도와 일과 육아에 대한 생각을 일련의 질문을 통해 알아봤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응답자들은 자녀의 교육비가 저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출산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 소득 수준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에 정책적 차원에서 응답자들이 정부의 출산 정책에 만족하는지, 육아휴직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이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에 참여자들이 정부의 출산 정책에 만족하는지, 육아휴직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이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결혼, 조혼, 조기 출산 등의 가치관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와 부모가 자녀를 통해 미완성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일련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연구의 설문지의 구조와 내용의 설계는 아래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지 항목 구성

변수	구분	순번	설문내용	비고
통제 변수	성별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홍성란 (2016)
	나이	2	귀하의 나이는?	
	학력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상태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갖진 아이수	4_1	기혼 또는 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수는?	
	원하는 아이수	5	귀하께서 아이 몇 명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직업	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외동여부	7	귀하는 본인이 외동자녀이신가요?	
종속 변수	출산의지 (5문항)	A1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성란 (2016) 백나영 (2013)
		A2	귀하께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3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4	귀하께서는 2명이상 다자녀를 출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5	출산이 생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 변수	사회적 요인 (4문항)	B1	귀하는 유치원 아동 학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성란 (2016) 박영애 (2013)
		B2	귀하는 여성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3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B4	직장을 가지는 것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요인 (6문항)	C1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란 (2016) 백나영
		C2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3	귀하는 정부가 출산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4	자녀양육비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 박영애 (2013)
		C5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6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요인 (4문항)	D1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란 (2016)
D2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박영애 (2013)	
D3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D4		출산장려정책이 좋으면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절 변수	가치관적 요인 (6문항)	E1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란 (2016)
		E2	결혼은 일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나영 (2013)
		E3	결혼은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애 (2013)
		E4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5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6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했던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까?	

##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중국 젊은층 남녀의 대상으로 324명 응답자의 표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자 중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성142명(43.8%), 여성182명(56.2%)으로 구성하였으며 10대 156명(48.1%), 20대 104명(32.1%), 30대 64명(19.8%)으로 전체 표본 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설문 응답자 중 324명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30명(9.3%), 중학교 졸업 103명(31.8%), 고등학교 졸업 166명(51.2%), 대학교 졸업 22명(6.8%), 대학원 졸업 3명(0.9%)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에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기혼 191명(59%), 미혼 124명(38.3%), 이혼 9명(2.8%)으로 응답자 중 갖진 아이수가 1명인 경우 130명(40.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아이 2명인 경우 64명(19.8%)으로 나타났다. 3명과 4명 이상인 경우 각 4명(1.2%), 1명(0.3%)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갖고 싶은 아이수를 살펴보면 아이를 안 낳고 싶다는 응답자가 75명(23.1%), 1명 128명(39.5%), 2명 103명(31.8%), 3명 13명(4%), 4명 이상 5명(1.5%)으로 나타났으며 아이 1명만 갖고 싶다는 응답자가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

왔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 8명(2.5%), 자영업 46명(14.2%), 생산/기능직 35명(10.8%), 사무직 57명(17.6%), 전문직 72명(22.2%), 학생 86명(26.5%), 주부 9명(2.8%), 기타 11명(3.4%)으로 전문직 하는 응답자가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외동자녀 여부를 살펴보면, 외동자녀인 응답자 173명(53.4%), 외동자녀 아닌 응답자가 151명(46.6%)으로 알 수 있다. 표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 >와 같다.

<표 3-2 > 표본의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42	43.8	갖고 싶은 아이 수	아이 안 낳고 싶다	75	23.1	
	여성	182	56.2		1명	128	39.5	
연령	10대	156	48.1		2명	103	31.8	
	20대	104	32.1		3명	13	4	
	30대	64	19.8		4명 이상	5	1.5	
학력	초등학교 졸업	30	9.3		직업	무직	8	2.5
	중학교 졸업	103	31.8			자영업	46	14.2
	고등학교 졸업	166	51.2			생산/기 능직	35	10.8
	대학교 졸업	22	6.8			사무직	57	17.6
	대학원 졸업	3	0.9			전문직	72	22.2
혼인 여부	미혼	124	38.3	외동 여부		학생	86	26.5
	기혼	191	59			주부	9	2.8
	이혼	9	2.8			기타	11	3.4
갖진 아이 수	1명	130	40.1			네	173	53.4
	2명	64	19.8			아니요	151	46.6
	3명	4	1.2					
	4명 이상	1	0.3					



#### IV. 실증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 1. 종합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출산의지에 대한 측정 항목은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의 질문으로서 '①전혀 아니다'에서 '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전체 문항을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의 평균값은 2.916으로 응답자의 평균적인 출산 의사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다른 변수의 평균값은 3.049 ~ 3.925로 각 관측 변수의 출산의지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표준편차는 0.869~1.245로 조사기준에 이상값과 오차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 표준편차가 0.5이상이면 사용자가 인지도에 따라 하는 데 일정한 편차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설문지 수집 플랫폼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전문적 배경 차이 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이 조사 데이터는 다음 검사 작업에 적합하다.

<표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산의지	중국 젊은 층의 출산의지에 대한 인식	2.916	1.245	1	5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지 정도	3.754	0.869	1	5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지 정도	3.925	0.882	1	5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인지 정도	3.149	0.999	1	5
가치관적 요인	혼인과 아이에 대한 가치관	3.049	1.065	1	5

###### 2.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 1) '출산의지' 설문분석 결과(A항목)

이 부분은 중국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설문 문항은 5가지로 구분하였다. 결과값을 보면 각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은 2.73에서 3.08 사이였다. 질문 a1의 평균 점수는 3.08점으로 응답자의 출생 의사에 대한 평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질문에 대해 표준편차는 1.405~1.504로 차이가 특별히 크지 않았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4-2> '출산의지'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a1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08	1.405	1	5
a2	귀하께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95	1.482	1	5
a3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81	1.452	1	5
a4	귀하께서는 2명이상 다자녀를 출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73	1.504	1	5
a5	출산이 생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99	1.475	1	5

## 2) '사회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B항목)

다음에 사회적 요인에 있어 아동 안전, 여성의 직장 및 직업 생활과 육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설문 문항을 4가지로 나누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질문의 평균값은 3.57에서 3.86 사이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과 삶이 병행되기 어려움으로 출산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3> '사회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b1	귀하는 유치원 아동 학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3.86	1.156	1	5
b2	귀하는 여성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7	1.287	1	5
b3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3.72	1.283	1	5
b4	직장을 가지는 것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85	1.164	1	5

### 3) '경제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C항목)

이 부분에 교육비, 정부지원정책, 의료비, 자녀양육비, 취업과 가계경제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6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를 살펴 보면 평균값은 3.83에서 4.00 사이였고 질문 c3에 대해서는 평균 4.00점으로 정부가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이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보육료지원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수입이 불안정하면 결혼할 뿐만 아니라 출산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알 수 있다.

<표4-4> '경제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c1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3	1.226	1	5
c2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85	1.152	1	5
c3	귀하는 정부가 출산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0	1.222	1	5
c4	자녀양육비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94	1.212	1	5
c5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6	1.148	1	5
c6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5	1.184	1	5

### 4) '정책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D항목)

이 부분에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 정책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각 문항의 평균값은 3.03에서 3.4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중국이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정부의 정책만족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였다. 문항 d1에 대해서는 평균 3.45점으로 중국이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이 더 많은 출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었다.

<표4-5> '정책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d1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45	1.367	1	5
d2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03	1.371	1	5
d3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07	1.270	1	5
d4	출산장려정책이 좋으면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3	1.378	1	5

5) '가치관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E항목)

이 부분은 결혼, 출산 및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개인의 가치관적 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에 따라 다음 6가지 질문이 구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은 2.86에서 3.41였고 질문 e4에 대한 평균값은 3.41로 응답자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혼을 해야만 자녀가 있는지와 자녀를 통해 미완의 소망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대두되었다.

<표4-6> '가치관적 요인'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e1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1	1.440	1	5
e2	결혼은 일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86	1.440	1	5
e3	결혼은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95	1.450	1	5
e4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1	1.349	1	5
e5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91	1.470	1	5
e6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했던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까?	3.14	1.412	1	5

제 2절 실증분석 결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6.0를 이용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을 위해서는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절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각 요인 변수와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4가지로 설정하였다. 우선,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성별, 나이, 학력, 자녀숫자)를 분석하며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만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3가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동시 존재하는 경우 종속변수인 출산의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모형4>에서는 조절변수의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7> 실증분석 결과2)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P값	비표 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값	비표 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P값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P값
상수	2.498		0.000 ***	2.922		0.000 ***	2.892		0.000 ***	2.928		0.000 ***
성별	-0.047	-0.022	0.753	-0.135	-0.064	0.244	0.071	0.034	0.470	0.073	0.035	0.448
나이	0.265	0.182	0.015 *	0.109	0.075	0.193	-0.016	-0.011	0.824	-0.023	-0.016	0.739
학력	0.192	0.145	0.041 *	0.178	0.134	0.017 *	0.066	0.050	0.286	0.081	0.061	0.188
자녀 숫자	-0.037	-0.019	0.802	-0.065	-0.032	0.572	-0.040	-0.020	0.677	-0.045	-0.022	0.634
사회적 요인				0.036	0.031	0.709	-0.118	-0.099	0.153	-0.058	-0.049	0.518
경제적 요인				0.277	0.240	0.004 ***	0.158	0.137	0.050 *	0.185	0.160	0.036 *
정책적 요인				0.525	0.464	0.000 ***	0.190	0.168	0.008 **	0.235	0.208	0.001 ***
가치관 적 요인							0.738	0.642	0.000 ***	0.732	0.636	0.000 ***
사회적 요인* 가치관 적 요인										0.097	0.083	0.243
경제적										0.113	0.100	0.176

요인* 가치관 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치관 적 요인										-0.194	-0.171	0.002 **
R <sup>2</sup>	0.054		0.451		0.625		0.651					
수정된 R <sup>2</sup>	0.034		0.431		0.609		0.631					
F 변화 량	2.742		45.908		87.680		4.620					
유의 확률	0.030*		0.000***		0.000***		0.000***					

\*\*\* p<0.001 ; \*\* p<0.01 ; \* p<0.05

<모형1>는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를 통제변수로, 출산의사를 종속변수로 분석하며, R<sup>2</sup>는 0.054로 전체 분산 중 5.4%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모형 유의확률은 <0.05인데 종속변수에 영향이 미친다고 알 수 있으며 각 통제변수 중에 나이, 학력은 유의확률이 <0.05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과 출산의지 사이의 유의확률은 >0.05로 나타났다며 출산의지에 영향이 미치지 않다고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유의확률은 <0.05로 유위하여 출산의지에 큰 영향이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모형3>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은 전체 모형에 대한 R<sup>2</sup>검증결과는 R<sup>2</sup>값이 0.625로써 유의확률은 <0.001로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나며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의 상호작용은 유의확률이 >0.05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서는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 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알 수 있다. 반면, 정책적 요인에 있어 가치관적 요인이 조절효과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0.171$ ,  $p<0.05$ ).

일반적으로 수정된 R<sup>2</sup>가 R<sup>2</sup>보다 크게 낮지 않으면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해석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4>의 수정된 R<sup>2</sup>는 0.631이고 R<sup>2</sup> 및 수정된 R<sup>2</sup> 값은 0.5보다 크면 모형이 종속변수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양호하고, 독립변수 수의 요인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잔차간의 독립성을 진단하는 Durbin-Watson 값은 2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인데 본 실증분석의 Durbin-Watson 값은 1.966로 나타났다.

### 제 3절. 가설의 검증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2>의 결과로부터 사회적 요인( $\beta=0.031, P>0.05$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 1>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요인( $\beta=0.240, P<0.05$ )로 인해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가설 2>가 채택하고 정책적 요인( $\beta=0.464, P<0.05$ )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므로 <가설 3>이 채택한다고 판단한다. <모형 4>의 결과로부터 상호작용항 사회적 요인 및 가치관적 요인 ( $\beta=0.083, P>0.05$ )는 조절 효과가 없으므로 <가설 4>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작용항 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적 요인 ( $\beta=0.100, P>0.05$ )은 조절 효과가 없으므로 <가설 5>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호작용항 정책적 요인 및 가치관적 요인( $\beta=-0.171, p<0.05$ )은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가설 6>은 채택하였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8>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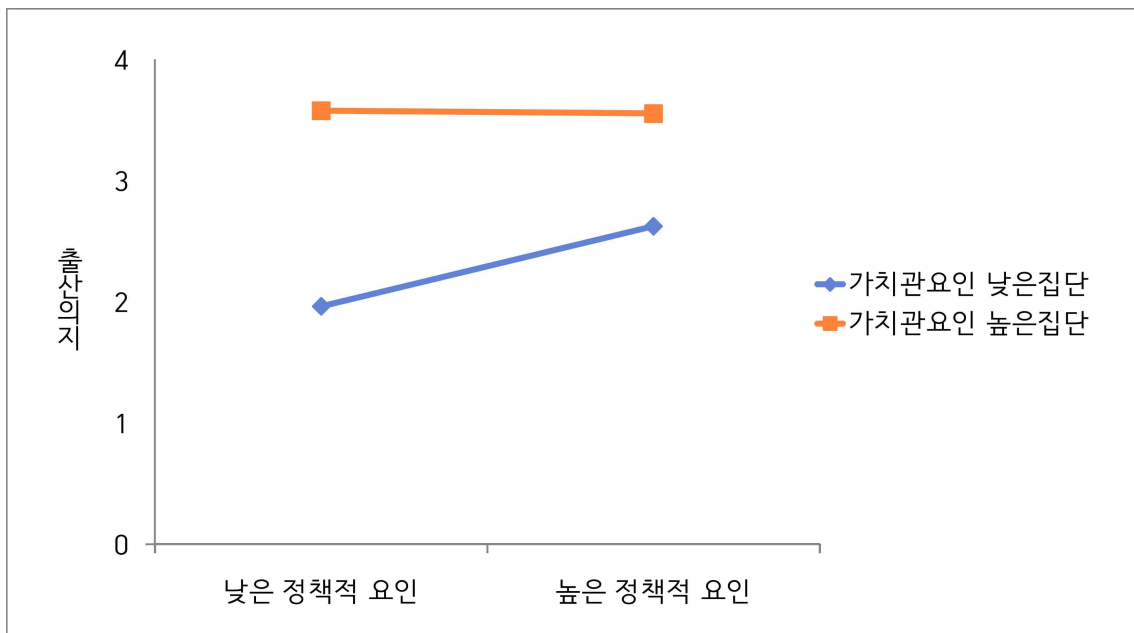
구분	가설	검증결과
<가설1>	사회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경제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정책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가치관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5>	가치관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6>	가치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출산의지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가치관적 요인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책적요인의 경우 가치관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Aiken & West의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치관 요인이 낮은 집단의 경우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경우 출산의지가 높아지는데 반해, 가치관적 요인이 높은 집단의 경우 출산의지가 약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에 대

한 가치관이 높지 않은 집단의 경우 정책적으로 결혼과 출산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지원할 경우 출산 의지가 매우 높아지는데 반해, 기존에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집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경우 출산의지가 높지 않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가치관적 요인의 조절효과



## V. 논문의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 1 절 논문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저출산 배경에서 젊은 사람들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와 실증연구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

첫째, 문헌연구에서 국내 발간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인터넷 자료, 중국 통계청 자료, 각종 회의에서 시행된 각종 출산 조치,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일련의 이론적 연구를 정리하였다.

둘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설립하고 연구목적을 탐색하기 위한 논문의 가설을 세웠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중국의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324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접수하였으며, 연구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 도구로 spss2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탐색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출산 의지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요인별로 수행하였다.

2).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계하고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의지와 각 요인이 사이에 조절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3). 본 독립변수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과 조절변수인 가치관적 요인은 출산의지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역대 합계출산율과 출산율 데이터를 회고하고, 중국 건국 이후의 출산 수준의 변동과 추세를 분석하면, 중국의 출산수준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1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며, ‘1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산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로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출산 수준의 지역 분석에 따르면 서부 지방은 일반적으로 높고 중부와 동부 지방

은 출산율이 낮으며 중부는 동부 지방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성은 칭하이와 신장이며, 동북지역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출산의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었다.

중국 젊은 사람들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다. 사회적 요인 중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안전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뗄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우려도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또한 여성의 직장 안정성과 직장과 육아 병행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다.

중국청년네트워크와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는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결혼 및 육아 개념 조사'를 조직하고 수행했으며, 그 중 여성 대학생은 55%로 자신의 직업 안정을 출산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여성은 출산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모순된 감정도 왕왕 더욱 복잡해진다. 가장 핵심적인 불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직업 발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 여성은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 승진, 급여 수준, 취업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출산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비용에는 임신 기간에 의료비, 출산 휴가 및 육아 비용이 포함된다. 간접비에는 육아에 드는 시간, 에너지, 이로 인한 직업 기회 손실 비용, 예상 소득 및 가능한 심리적 부담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 비용은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다. 또 고액 예물과 고액 집값도 젊은층의 결혼의지에 영향을 미쳐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다.

출산 정책은 중국 가정의 출산에 지도적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조정과 최적화된 출산 정책도 가족의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이 출산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람들의 출산의지에 촉진 작용을 한다고 알 수 있다. '2자녀' 정책을 실시로,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출산 붐이 지나간 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책은 중국 젊은 사람들의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율을 더욱 촉진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 30여 년간에 '1자녀' 정책은 엄청난 규모의 외동자녀를 낳았다. 한 자녀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외동자녀는 부모의 출산 행동과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낮은 출산

선호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가치는 크게 바뀌었으며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가치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출산의지 사이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다. 개인의 가치는 가족, 직업,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며, 이러한 관념은 정책의 영향 아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긍정적인 출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 건설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쉽게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관련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영향으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가족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 환경은 출산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직업 발달, 개인의 자유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정책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가치관의 영향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알 수 있다.

## 제 2절 정책 제언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출산의지에서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므로 출산 정책은 출산 의향에 없어서는 안 될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저출산 수준에 대한 미시적 가족 측면, 거시적 정책 측면과 사회 측면으로 '출산 정책 보완→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양육 부담 완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거시적 정책적과 사회적 측면: 출산 지원 정책 개선 및 새로운 형태의 출산 문화를 구축하다.

2014년 '단독 2자녀' 정책, 2016년 '전면 2자녀' 정책, 2021년부터 전면 '3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매우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에만 의존해 출산 장려를 위한 일련의 지원책이 부족하면 현재의 저출산 수준을 되돌리기 어렵다. 사회적 지원을 더욱 개선하고 가족 출산 및 양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유아 보육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한다. 현재 0~3세 영유아 돌봄 공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은 여전히 비교적 큰 돌봄 스트레스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을 의무교육단계에 포함시키고,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아 교사 양성을 강화하고, 자녀의 유아 시절에서 부모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행을 엄격히 감독한다. 기존의 출산휴가제도는 영아의 수유기간 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며, 각 기업과 기관이 탄력적인 휴가정책을 추가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여성의 사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별 할당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제도 등도 권장해야 한다.

30년 동안 중국은 한 자녀만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 출산 정책의 선전과 실시를 통해, 이미 중국 사회의 주류 출산 관념이 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관념을 바꾸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 다방면의 협조로 차근차근 출산 의지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 출산의 자유와 자주권을 존중하고 출산정책의 포용성을 높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출산의지가 변화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면 계속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외부 환경 조건이나 내적 인지 관념 등의 요인이 변화할 경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출산 관념이 변화하여 출산의지를 생길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둘째, 사회화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 형식을 채택한다. 긍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결혼관과 가족관을 재구성한다. 문화홍보부서는 여론지도를 강화하고 올바른 여론지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긍정적인 출산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

미시적 가족 측면: 양육부담 감소하고, 출산불안성 완화한다.

가족은 출산행동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최근 가족 차원에서 육아불안성 및 육아스트레스는 가족의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녀교육이 가정 양육의 가장 큰 지출로 떠오르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계의 육아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직업 중

단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양육 부담을 줄이고 육아 불안과 출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가족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노력을 모아야 한다.

첫째, 국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출산, 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가구에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가정 형편에 따라 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 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노동자, 미취업자의 출산 보험을 고려하며, 점차적으로 출산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여성의 헌신을 존중하고 여성을 전방위로 지지한다. 아이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새로운 출산 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책을 재정립하고,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책무임을 홍보하며,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의 큰 차이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출산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가 인구 경제 발전과 관련된 큰 일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하루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부분의 역량을 종합하여 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출산 문화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인구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은숙. (2011).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시하. (2011).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림. (2021). 근대적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프랑스의 경험과 한국사회의 미래. *인간과 평화*, (2)2: 187-210.
- 박선권. (2019).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8: 1-15.
- 정다운. (2017).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민지. (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영이. (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우림. (2021). 출산력에 대한 융합적 탐구: 인구밀도와 편중 분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세창. (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호. (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113-134.
- 조대연 외. (2016).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HRD 분야의 역할과 과제. *HRD연구*, (18)2: 37-64.
- 송영신. (2017).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아시아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3회 콜로키움 참관기. *사회보장법연구*, (6)2: 409-419.
- 이정원. (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양귀순. (2015). 出生率 向上을 위한 家族支援制度 比較研究.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령. (2018).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정책도구에 대한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운옥. (2012).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운영. (2018).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성란. (2016).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나영. (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 의 관계연구 : 개인 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2013).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益基.(2017). 重思中国的人口新政策：与日韩低生育率和人口老龄化比较. 学海, (1): 134-143.
- 王 凯. (2020). 低生育率因素的实证分析——基于人口抽样调查统计. 广西质量监督导报, (3): 13-14.
- 李建伟. (2020). 我国人口出生率的影响因素及其发展趋势. 发展研究, (2014)9 : 71-78.
- 张 芬 외. (2023). 房价对家庭生育决策的作用机制. 人口研究, (47)2: 96-111.
- 焦 敏. (2023). 婚姻大事怎么甩掉高价彩礼包袱. 中国青年报, (2023)7:1-3.
- 刘 卓. (2019). 中国人口生育水平变动及影响因素研究. 西南财经大学 硕士学位论文.
- 季言玲.(2023). 论低生育率背景下生育保险制度待遇工作. 就业与保障, (2023)2: 84-87.
- 何盛明. (1990). 财经大辞典. 中国财政经济出版社
- 陈 对. (2019). 人口红利、人口转变与经济增长. 四川大学 博士学位论文.
- 梁嘉宁. (2023). 中国家庭生育影响因素研究.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 杨 慧. (2022). 三孩政策下企业生育成本负担及对策研究---基于延长产假的分析. 全国妇联妇女研究所, 北京 100730
- Craig J (1994). Replacement level fertility and future population growth. Population Trends. 78: 20-2
- 杨菊华 외. (2019). 生育政策与出生性别比.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9-1
- 刘 平. (2013). 人口老龄化对中国经济增长的影响研究. 山东大学, 2013 : 12-13.
- 王利民. (2013). 中国人口发展与生育政策. 国家行政学院出版社,2013(11):75-76
- 袁永熙. (1991). 中国人口总论. 中国财政经济出版社, 1991 : 180-181
- 侯佳伟. (2018). 子女偏好与出生性别比的动态关系. 中国社会科学, 2018-10

梁建章 외.(2014). 中国人可以多.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 143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 중국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서청 학생입니다. 저의 석사과정 학위논문 주제로 중국 고령화시대에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었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조사는 학위논문에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가치관적으로 구성된 4방면 요인은 중국 젊은 층들에 출산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시간은 약 3분 정도이니,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서청(fhsdsxm@naver.com)

지도교수: 김 주 경(agelead@jejunu.ac.kr)

##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이상

S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SQ4.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SQ4\_1 기혼 또는 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수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SQ5. 귀하께서 아이 몇 명을 낳기를 원합니까?

- ① 아이 안 낳고 싶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SQ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② 자영업 ③ 생산/기능직 ④ 사무직 ⑤ 전문직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

SQ7. 귀하는 본인이 외동자녀이신가요?

- ① 네, 외동자녀입니다.              ② 아니요, 외동자녀 아닙니다.

※ 출산인식에 관한 항목

Part 1. 젊은 층들의 출산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2명이상 다자녀를 출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출산이 생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항목

①사회적 요인    ②경제적 요인    ③정책적 요인    ④가치관적 요인

Part 2.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사회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유치원 아동 학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여성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직장생활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을 가지는 것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3.**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경제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정부가 출산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양육비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혼을 늦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4.**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정책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출산장려정책이 좋으면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Part 5.**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가치관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은 일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했던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本调查所调查的所有内容，除统计目的外，一律不得使用，统计法（第三十三条）规定保密。

## 关于中国低出生率原因和问题的问卷调查

您好！

我是济州大学普通研究生院行政系在读硕士课程的学生徐晴。以我的硕士学位论文为主题，研究中国老龄化时代低出生率的原因和问题。

我国2022年人口首次出现负增长，政府出台了一系列政策解决低出生率问题。本次调查是为收集学位论文数据而编写的，本研究旨在分析社会、经济、政策、价值观四方面因素对中国年轻人生育意识的影响。

本次调查结果仅作为本研究实证分析的基础资料。 问卷回答所需时间约为3分钟左右,请如实回答您平时所想的内容。

本调查的问卷内容及个人个人信息根据统计法第33条(秘密保护等)和第34条(统计制作事务从事者等义务)彻底保障秘密。

谢谢。

2023年 5月

济州大学普通研究生院行政系:徐 晴(fhsdsxm@naver.com)

指导教授:金周京(agelead@jejunu.ac.kr)

## SQ. 受访者选择问题

SQ1. 您的性别是什么？

- ① 男性                      ② 女性

SQ2. 您的年龄是？

- ① 10多岁              ② 20多岁              ③ 30多岁              ④ 40多岁 以上

SQ3. 您的学历是？

- ① 小学毕业 ② 中学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学毕业 ⑤ 研究生毕业

SQ4. 你的结婚状态？

- ① 未婚              ② 已婚              ③ 離婚

SQ4\_1 已婚或离婚时,请只有有子女的人回答。 您的子女数？

- ① 1名 ② 2名      ③ 3名 ④ 4名 以上

SQ5. 您愿意生几个孩子？

- ① 不想生孩子                      ② 1名  
③ 2名                      ④ 3名  
⑤ 4名以上

SQ6. 您的职业是？

- ① 無職 ② 自營業 ③ 生産/技能職 ④ 事務職 ⑤ 專門職 ⑥ 學生 ⑦ 主婦 ⑧ 其他

SQ7. 您本人是独生子女吗？？

- ① 是的 是独生子女.                      ② 不是 不是独生子女.

※ 生育认知的相关项目

**Part 1.** 关于年轻人生育意愿的问题.

问题	绝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抵如此	非常如此
1. 如果有机会, 您愿意生育吗?	①	②	③	④	⑤
2. 您认为生孩子一定好吗?	①	②	③	④	⑤
3. 你认为已婚夫妇生育是理所当然的吗?	①	②	③	④	⑤
4. 您是否愿意生育2个以上的多子女?	①	②	③	④	⑤
5. 你认为生育对人生重要吗?	①	②	③	④	⑤

※有关生育意愿因素的项目

①社会因素    ②经济因素    ③政策因素    ④价值观因素

**Part 2.** 以下是关于生育意志的影响因素相关社会因素的项目.

问题	绝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抵如此	非常如此
1. 您对幼儿园虐待儿童很担心吗?	①	②	③	④	⑤
2. 你认为女性对就业不利吗?	①	②	③	④	⑤
3. 你觉得职场生活与育儿并举很难吗?	①	②	③	④	⑤
4. 你认为找工作会影响生育吗?	①	②	③	④	⑤



**Part 3.** 以下是有关影响生育意愿因素相关经济因素的项目。

问题	绝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抵如此	非常如此
1. 您认为子女的教育费用负担过重是低出生率的原因吗?	①	②	③	④	⑤
2. 您认为需要政府实行的保育费补贴制度吗?	①	②	③	④	⑤
3. 您认为政府应该补贴生育医疗费吗?	①	②	③	④	⑤
4. 你认为子女抚养费对经济形势影响很大吗?	①	②	③	④	⑤
5. 你认为找不到工作或者找不到稳定的工作会晚婚吗?	①	②	③	④	⑤
6. 你认为如果收入不够维持婚姻生活,会早点结婚吗?	①	②	③	④	⑤

**Part 4.** 以下是有关影响生育意愿因素的政策因素的项目。

问题	绝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抵如此	非常如此
1. 您认为中国的生育奖励政策有必要吗?	①	②	③	④	⑤
2. 您对中国的生育奖励政策满意吗?	①	②	③	④	⑤
3. 您对政府实行的保育费补贴政策满意吗?	①	②	③	④	⑤
4. 你认为生育奖励政策好的话,会多生育吗?	①	②	③	④	⑤

**Part 5.** 以下是有关生育意志影响因素的价值观因素相关项目。

问题	绝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抵如此	非常如此
1. 你认为必须结婚吗?	①	②	③	④	⑤
2. 你觉得早点结婚好吗?	①	②	③	④	⑤
3. 你认为结婚最好早点生孩子吗?	①	②	③	④	⑤
4. 你觉得做父母是值得的么?	①	②	③	④	⑤
5. 你认为结婚当然要有子女吗?	①	②	③	④	⑤
6. 父母想通过子女实现自己没有完成的事情吗?	①	②	③	④	⑤

# A Study on the Causes and Problems of Low Fertility in the Age of Population Aging in China

XU QI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intentions of Chinese youth within the context of low fertility rates,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is phenomenon. The factors examined encompass social, economic, policy, and values aspects, aiming to comprehend their collective impact on fertility intentions. The study adopts a combined methodology involving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In documentary research, academic papers, research reports, internet sources, data from the China Statistical Yearbook, and fertility-related conference measures are utilized to synthesize theoretical studies. The study establishes a research model by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intentions and formulating hypotheses.

Empirical analysis employs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examining their relationships to discern their impact. A survey conducted from May 1 to 7, 2023, targeting young Chinese individuals, yielded 324 valid responses. SPSS26 software is used for analysis, employing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o explo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intent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assess the interplay between social, economic, policy factors, and values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with fertility intentions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dings include an analysis of China's historical total fertility rate and fertility rate data, observing fluctuations and trends attributed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One-Child" policy. Recent years show record-low fertility rates, anticipating a population decline in 2022. Regional analysis reveals variations, with western regions generally having higher rates. Concerns about child safety emerge as a widespread social factor influencing fertility intentions.

Conflicting feelings between women's job stability and balancing work and parenting are noted. A survey by the China Youth Network and the China Population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ndicates female college students consider job stability crucial for childbirth. Economic considerations, including childbirth costs, significantly influence fertility intentions.

The study emphasizes childbirth policies' role in influencing family fertility decisions, finding continuous adjustments impact family fertility intentions positively. Participants believe ongoing improvements in China's childbirth policies are necessary. However, the "Two-Child" policy, initially increasing fertility rates, fails to sustain the upward trend.

The long-standing "One-Child" policy leads to a substantial number of only children, impacting fertility preferences. Values play a crucial role in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actors and fertility intentions. Positive attitudes toward childbirth align with recognizing and supporting

family-building policies. Conversely, those with cautious or passive attitudes might reject policy support due to their values. Some consider parenthood essential, viewing family as life's meaning, making a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likely to stimulate fertility desires. Conversely, individuals prioritizing career and personal freedom may have a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childbirth, limiting policy influence.

In summary, the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intentions in Chin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ailored policies addressing the diverse needs and value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 promote sustained fertility rates.